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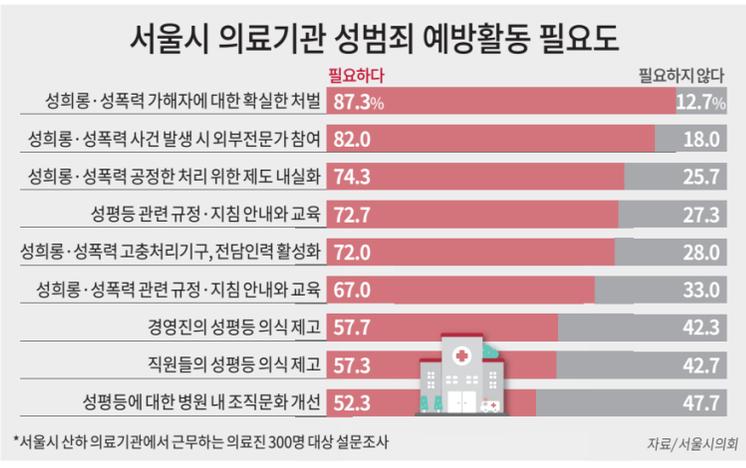
# 서울 병원, 채용 때 성차별 '여전'... 10명 중 1명은 성범죄 피해

## 서울시의회, 성인지 감수성 설문

10.3% "직무 부여 시 성별 영향 있어" 고위 행정업무 등에 남성 선호 경향 의료진 성범죄 가해자, 76.5% 환자 예방 위해 가해자 확실한 처벌 '절실'

#1. "신규 레지던트를 뽑을 때 여자들이 성적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성비를 맞춰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남자만 혹은 여자 조금'은 되지만 '여자만 혹은 남자 조금' 이런 식으로는 뽑지 않는 거죠. 특히 젊은 여성을 선발할 때 이 여성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임신하면 업무적으로 배려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2.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인정받는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여자 대비 남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뭘 좀 일을 잘못하면 '저 사람은 애가 있어서', 아니면 '아줌마라서' 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반면 남자 직원에게는 '년 남자라서 뭔가 준비가 돼 있다.', '남자라서 책임감이 역시 다르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3.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 간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간호사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해요. 의사는 당당하게 병원 다니고, (중략) 피해자는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해결하려면

고충 처리 기구에 내부 직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인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나, 서울 소재 일부 병원들

에서는 전공의 채용과 고위 행정 업무에 남성을 선호하는 등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진 열에 하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1~24일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료인 성인지 감수성 관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10.3%가 '직무 부여 시 개인의 업무 역량보다는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인사 제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평등 수준을 조사한 결과 ▲고위 행정업무(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5.3%) ▲경력비슷해도 여성보다 남성의 승진이 빠른 편이다(12.3%) ▲전문적인 직무에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1.7%)는 응답이 나왔다. 또 ▲상급자(인사권자)는 여성보다 남성과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거나 편하게 여긴다

(11.3%) ▲여성보다 남성이 근무 평점이나 업적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서/업무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10%)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채용이나 승진에서의 성차별 외에 실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1년간 병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1.3%로 조사됐다. 의료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76.5%는 환자였다. 상급자(20.6%), 환자 보호자(17.6%), 동료·하급자(5.9%)가 뒤를 이었다.

의료인들은 병원 내 성평등 실현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87.3%),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 참여'(8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제도 내실화'(74.3%), '성평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교육'(72.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韓 최대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 열린다

오는 17일~27일까지 DDP서 열려 '내일을 상상하다' 주제로 전시 선포

밀라노, 런던 등 세계 유수 도시에서 개최하는 디자인 워크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 2024'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시내 곳곳에서 AI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디자인 2024'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내일을 상상하다(Imagine Tomorrow)'를 주제로 아티스트, 디자이너, 소상공인, 기업과 함께 전시, 마켓, 콘퍼런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제전을 기획한 미디어 아티스트 강



이연작가는 AI와 인류의 공진화를 다룬 '아키텍처'라는 작품으로 풀려난다. 기업 전시&팝업은 다양한 '디딩기업'을 한 곳에서 만나는 트렌드 전시로 DDP 어울림광장에서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SM엔터테인먼트, LG 유플러스, 레코드를 포함 14개 기업이 준비한 전시와 이벤트, 인터랙티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오는 23~26일에는 디자인 콘퍼런스

가 진행된다. 한국의 대표 트렌드 분석가 김난도 교수를 비롯해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CAO, 조승연 작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이 연사로 나선다. 이번 콘퍼런스는 최신 디자인 트렌드, 미래 시대에 대한 방향성, AI를 활용한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

의 장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시 외에 어울림광장과 미래로, 팔거리에서는 디자인 마켓이 운영된다. 재능 넘치는 소상공인들의 디자인 소품, ESG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디자인 전시와 콘퍼런스 입장권은 유료이며, 네이버에서 예매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경기북부 최초 선정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등 고양시 일대 총 125만㎡에 걸쳐 있으며, 이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 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산업이 밀집한 곳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 면제와 정부의 경영·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15% 추가 감면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고양시의 경제자

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 및 기업 경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800억 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와 100억 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 4차 산업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고,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는 기업들이 입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시형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경제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亞 최대 규모 테마파크 도입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 '파라마운트'

경기 서부권에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문화산업 중심으로 동쪽에 에버랜드, 서쪽에 테마파크를 우뚝 세우고 싶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해안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17년 갈증을 이번엔 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2040년까지 총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포함한 서부 개발 비전을 담은 경기서부 SOC 대개발 발표를 했다. 화성시는 서부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다. 테마파크조성이 성공적인 대개발을 견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됨에 따라 신세계화성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미디어 기업이다. /화성(경기)=유진채 기자 yujin@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9 | 해질 / 17:56

10월 14일 (월)  
음력 : 9월 12일

수도권 날씨  
17~24°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4/23, 동두천 15/23, 가평 13/22, 파주 14/23, 서울 17/24, 양평 15/22, 인천 18/23, 수원 17/23, 용인 17/23, 평택 16/24, 백령도 1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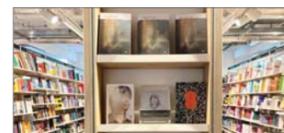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녹색기후기금 첫 한국인 국장 부임... 14일 근무 시작 /사진 뉴시스  
▲ 레바논 유엔군 부상자 5명으로 늘어... "이스라엘 철수 요구 거부"

▲ 이란 유엔대표부, "이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무관"  
▲ 코스타리카 태평양 근해서 규모 6.2 강진 발생



▲ "50년 만에 처음" 기상청도 놀랐다... 폭우로 물바다된 사하라 사막  
▲ 주영한국문화원, 노벨문학상 한강 특별 코너 마련 /사진 뉴시스